

## 박완서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의미

김 미 영\*

### 차 례

1. 서론
2. 생존 본능과 인간다움의 가치지향
3. 세속적 욕망과 '순정 시대'의 갈망
4. 기억과 노스텔지어, 그리고 어머니
5. 젠더의식과 정체성 구현
6.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박완서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사회 환경과 여성의 자의식 형성이 관련 맺고 있는 양상을 음식의 문학적 재현을 통해 탐구한 것이다. 그의 소설은 1970년 등단작부터 마지막 장편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여성들의 삶 본위로 다룬 세대묘사가 강점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미시적 접근에 관심을 두었다. 미시적 접근의 경우 음식문화가 주효하리라 판단하였다.

한국전쟁과 70년대 산업화, 90년대 후기자본주의로 이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여성의 삶은 능동적이고 여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음식은 한국전쟁의 상황에서 생존 본능

을 보여준 대상이자 인간다움, 인간애를 보여준 대상이기도 하다. 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환경은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였고, 중산층들이 지닌 세속적 욕망과 이증성, 속물성 등을 음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작중인물은 풍요로운 음식에 길들여진 미각을 통해 이러한 중산층의 세속성을 비판하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 90년대 이후,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젠더의식이 뚜렷해진다. 여성은 요리하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 성적 욕망 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박완서 소설에서 자서전적 경향을 드러내는 90년대의 작품들에는 유년시절에 대한 향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음식문화로 드러내고 있다.

장편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음식담론은 크게 4가지의 의미로 수렴된다. 작품마다 중복되는 양상도 있으나 강조되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생존 본능을 드러내면서도 인간다움의 가치지향을 보여준 『나목』, 『목마른 계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이다. 그리고 세속적 욕망과 '순정 시대'의 갈망은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고향에 대한 향수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자서전적 경향의 소설에서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나타난 기억의 방식이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통한 젠더의식과 정체성의 구현은 『나목』, 『서있는 여자』, 『아주 오래된 농담』과 『그 남자네 집』 등에서 확인하였다.

박완서는 음식의 문학적 재현이라는 서사 전략을 발휘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탁월한 묘사력과 함께 여성 의식의 변화 양상을 시대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대소설의 성공적인 형상화는 평범한 일상성에 내포된 담백한 모습과 상징적 의미를 간과하지 않는 글쓰기에서 비롯됨을 보여주고 있다.

\* 핵심어 : 생존본능, 인간다움, 세속적 욕망, 순정시대, 기억, 노스텔지어, 젠더의식, 정체성.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서론

이 글은 박완서의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음식 또는 음식문화가 여성의 삶을 드러내는 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관심을 둔 것이다. 여성과 친화적인 음식문화는 여성의 삶을 구현하는 데 상관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하였다. 이는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동시에 인간존재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의 글쓰기 특성, 즉 세태소설의 의미를 조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먹기 욕구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이 다른 사람들 및 문화적 인공물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은 음식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틀 짓는다.<sup>1)</sup> 즉 음식의 역할은 유기체로서의 생명을 지탱하는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적 기능을 지닌다. 따라서 문학에 재현된 음식은 단순한 소재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음식은 문화적 의미망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문학적으로 재현할 때 문화적 변동의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박완서는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을 체험한 작가로서 당시의 삶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소설화 하였다. 한국 여성소설사에서 박완서의 독특한 위치는 전쟁과 분단에 대한 집요한 탐구정신과 시대를 반영한 일상생활의 다양성에 근거할 것이다. 등단작인 『나목』(1970)에서부터 마지막 장편인 『그 남자네 집』(2004)과 작고하기 직전까지 40여년의 긴 창작 활동은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천착하거나 중산층의 속물적 삶, 도시민의 일상, 여성문제, 노년의 문제, 죽음과의 대면 등을 담아내는 열정적인 시간이었다. 그의 소설의 미덕이라 할 수 있는 ‘생동감’의 서사는 일상적 삶의 감각을 통해 빛나고 있다. 그는 일상의 표면과 우리 내면에 숨겨진 허위를 포착하여 표현해 내는 데 뛰어난 감각을 지닌 작가

일 뿐 아니라, 그것을 경쾌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 독특한 언어 구사력<sup>2)</sup>을 지닌 작가로 평가받았다. 일상적 삶의 감각을 생동감 있게 그릴 때 그의 재능이 탁월한 영역은 음식, 집, 의복, 꽃 등의 이미지 구사이다. 이 글에서는 음식문화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로널드 르블랑은 ‘음식과 성’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문학 속 인물의 음식을 먹는 태도, 먹는 행위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 심리와 더불어 작중인물이 살고 있는 세계의 사회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르블랑은 먹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리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차원까지 아우르는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문학 속 식사 묘사는 일상생활을 더 넓은 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상징적 가능성을 갖는 내러티브 기호로 변화<sup>3)</sup>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문학에서도 음식으로 접근할 경우, 서사적 기능 외에 당대 사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완서의 경우, 음식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에 대한 관심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몇몇 연구자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음식에 관심을 둔 첫 연구는 이선옥의 글<sup>4)</sup>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박완서 소설의 특징을 기억의 방식으로 보며, 『나목』은 색의 기억으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맛으로 기억되는 작품으로서 ‘온갖 색과 맛으로 기억되는 전쟁은’ 작품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짧은 논평임에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음식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미령의 연구<sup>5)</sup>에서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음식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음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신선훈의 연구라 하겠다. 그는 학위논문과 소

2) 황도경, 「이야기는 힘이 세다」, 『문체로 읽는 소설』, 소명출판, 2002, 111면.

3) 로널드 르블랑, 『음식과 성』, 조주관 옮김, 그린비, 2015, 25면.

4) 이선옥, 「박완서 소설의 다시쓰기: 딸의 서사에서 여성들 간의 소통으로」,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0.08.

5) 차미령, 「생존과 수치: 1970년대 박완서 소설과 생존주의의 이면(1)」,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1) 데버러 럽턴, 『음식과 먹기의 사회학』, 박형신 옮김, 한울, 2015, 8면.

논문에서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였다. 그는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출현한 ‘먹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개념화하면서 한국인의 집단적 허기의 기원을 박완서의 초기 장편소설에서 밝히고 있다.<sup>6)</sup> 필자는 이러한 논의에 공감하며 1970년대 장편뿐만 아니라 그의 전 작품으로 더 확장시킬 필요성을 느끼며 본고를 시작하였다.<sup>7)</sup> 즉 작품대상의 범주를 전체 장편으로 확장하여 ‘먹는 인간’에서 ‘요리하는 인간’의 의미까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밖에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허기’와 ‘포만’<sup>8)</sup>의 의미를 살핀 연구도 주목할 수 있다.

선행연구가 이루어 놓은 선취에도 불구하고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음식에 주목한 이유는 그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은 특정 시대, 특정 작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지류이기 때문이다. 그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에 대한 의미를 톺아보면 그의 소설 세계에 대한 평가인 ‘수다스러움’, ‘역사적 증언’ 등과도 만나게 된다. 수다와 증언이 모두 ‘입’이라는 신체기관을 통하듯, 입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인 ‘먹기’를 다루면 그의 소설세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입’의 기능으로 ‘말하기’와 ‘먹기’를 살펴볼 때, 서구정치의 기원으로 소급할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입의 역할은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로 구분되며 그 역할에 차이를 드러낸다. 전자는 주로 먹기 위해서 쓰는 입의 기능이고, 후자는 공적 생활에서 부각되었다.

6) 신셋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신셋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45집, 상허학회, 2015.

7) 이 연구는 한정된 지면상, 깊이 있는 연구가 힘들다는 점이 있다. 10편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음식이야기들은 매우 다양한데 이를 모두 깊이 있게 논하기에는 지면과 연구자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처음 논문의 구도는 전 작품에 나타난 음식이었는데 이것은 매우 지난한 과제라서 연구방향을 장편과 단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8) 김혜선, 「한국적 삶에 드러난 ‘허기’와 ‘포만’의 의미: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8집, 한국근대문학회, 2017.

공적생활은 폴리스의 탄생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삶을 말한다. 두 번째 생명이 정치적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삶에서 입은 오로지 말을 위해서만 쓰인다.<sup>9)</sup>

박완서에게 ‘입’은 작가적 운명과 결부된다. 자전적 경향이 강한 장편소설에서 자신의 글쓰기를 ‘역사의 증언자’로 규정한 것은 한국의 근대사를 견뎌온 지식인으로서의 책무감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완서는 자신이 체험한 전쟁의 상처를 증언자로서 알리기 위해 ‘말하는 입’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그래서 박완서 소설은 여성의 이야기, 여성의 말로 넘쳐난다. 남성들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능청스런 목소리로 불거져 나오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남성적인 권위와 검열의 시선을 우회한다.<sup>10)</sup>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입’은 ‘말하기’와 더불어 또 다른 모습으로서 ‘먹기’의 강렬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음식은 ‘말하기’와 함께 작가의 심층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에서 여성주체는 시대별로 또는 창작연대에 따라 그 특성이 구조되며, 변화의 양상이 드러난다. 이때 음식의 문학적 재현은 여성의 주체화 과정, 여성의 삶의 구체화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그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삶은 한국전쟁과 전후복구 시기,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매우 리얼하게 담고 있다. ‘음식’이라는 문화적 코드로 접근할 때, 세태소설을 뛰어넘는 그의 소설성격을 해명하게 될 것이다.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부터 자본의 풍요를 즐기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에 나타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고, 다양한 여성의 삶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다.

## 2. 생존 본능과 인간다움의 가치지향

박완서는 불혹의 나이에 『나목』(『여성동아』, 1970년 11월호)으로

9) 김향, 『말하는 입과 먹는 입』, 새물결, 2009, 25면.

10) 임옥희, 「박완서 문학과 페미니즘」,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 찾기』, 세계사, 2000, 131면.

등단하였다. 늦깎이 등단이지만 이후 왕성한 활동으로 다작을 남기면서 문학과 여성소설사의 지평도를 확고히 했다. 그에게 식민지시대의 근대 경험과 한국전쟁, 분단 상황 등의 역사적 체험은 창작의 동인이기도 하면서 그의 삶을 지배한 근원적 트라우마로 작용하였다. 특히, 전쟁이나 분단이라는 동일한 제재의 반복적인 형상화는 이 시대에 대한 작가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1)</sup> 즉 작가도 인지하는 제재의 반복성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의 고백으로서 그 미진함을 해소하려는 집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이 빚어낸 동물적 상황과 이런 시대를 살아 낸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천착이라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미를 지니며, 여성의 몸으로 통과한 전쟁체험에 대한 증언이라는 점에서 젠더의식과도 연동된다.

인간에게 음식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인간의 생존본능이다.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도 일차원적인 생존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듯하다. 『목마른 계절』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등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 음식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생존은 이데올로기 이전, 성찰 이전, 사고 이전의 생명의 충동과 힘의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목숨이 붙어 있는 존재로서 생존에의 경향성을 벗어던질 수 있는 존재는 없으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들은 비탄의 대상일 수 없다. 생존에의 열망은 자연적인 것이며, 선악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sup>12)</sup> 생존에 대한 본능적 태도는 전쟁이든 일상적 상황이든 동일하다고 본다. 다만, 전쟁 상황에서는 이성, 윤리, 규범 등을 초월하면서 드러나기에 동물적, 비인간적일 수도 있는 생경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윤리와 도덕성을 벗어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들 수 있다.

오목이의 이런 그악스러운 허기중에 가장 많이 당하는 건 수지였다. (…중략…) 오목이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착한 아이 노릇에 지친 수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방정맞은 생각은 한번 떠오르기가 잘못이었다. (…중략…)

그러나 난리통이었다. 선택은 죽기 아니면 살기가 있을 뿐이었다. 살기 위한 선택은 아무리 비인간적이라도 정당했다.<sup>13)</sup>

전쟁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 작품은 전쟁 중에 식탐이 유난히 강한 동생을 고의로 유기한 언니의 죄의식을 담고 있다. 전쟁 중 신체적 허기에 시달리는 자매는 살기 위해서 친 혈육도 유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언니(수지)는 식탐이 강한 여동생(오목/수인)만 없다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7살이란 어린 나이에 하였다. 그리고 혼란한 피난 대열에서 잡고 있던 동생의 손을 일부러 놓아버린다. 더 나아가 동생을 유기한 후, 그 사실을 감쪽같이 은폐하기도 한다. 7살의 언니가 취한 행위는 ‘난리통’에 선택한 생존 수단으로서 여기에는 윤리적 잣대도 비껴서 있다. 살기 위해서, 즉 음식의 확보 때문에 친 혈육을 유기하는 비도덕성과 은폐의 교활함이 당시 생존자의 상황에서는 용인된 것이다. 배고픔보다 더한 무력함의 절대적 징후는 없다.<sup>14)</sup> 그 무력함은 ‘생존육망’ 이외의 모든 욕구나 가치들을 무력화 시킨다. 이성, 윤리, 도덕, 우애 등의 고귀한 것들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먹는 행위의 절박성이 인간다운 가치들을 삼켜버린 것이다.

『목마른 계절』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도 생존을 위해 비루해지는 인간의 모습이 음식의 문학적 재현으로 드러난다. 두 작품에 형상화된 ‘서울’은 9·28수복 전후와 1·4후퇴 전후의 공간으로서 실제 전투장소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그러나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의 불안은 전쟁터의 공포보다 고조되어 있다. 전쟁터의 총알이 오가는

11) 김미영, 「박완서의 성장소설과 여성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연구』 제25집, 한중인문학회, 2008.

12)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9집, 한국사회학회, 2015, 206면.

13)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 세계사, 2012, 27-37면.

14) 캐롤 M. 코니한, 『음식과 몸의 인류학』, 김정희 옮김, 갈무리, 2004, 27면. 이 내용은 Lappe & Collins (1986)와 Arnold(1988. 3.)가 언급한 것을 코니한의 저서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공포보다 이념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데서 비롯되는 공포와 불안이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빠의 죽음이 대표적이다. 오빠는 이념 전향과 의용군에서의 탈출이라는 이력 때문에 죽음의 코너로 몰린 짐승처럼 정신적 피폐함을 드러낸다. 게다가 다리 부상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는커녕 피난조차 하기 힘든 처지로 전락한다.

당시 생존을 위해 가장 치열한 문제는 ‘식량’의 해결이었다. 전쟁 전에는 오빠가 경제적 책임을 전담하였으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 그 역할은 여성에게 전가된다. 이념 때문에 무력해진 오빠를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적인 감각을 발휘하는 인물이 여성으로 변한 것이다. 위장한 피난민 하진의 가족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빈집의 음식들을 도둑질해 오는 행위,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음식이 상할 것을 염려하여 먹어야 하는 것은 생존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팔죽을 혐오스러워 하는 걸 보고 숙모는 변명처럼 예로부터 상제가 팔죽을 먹는 건 흉이 아니라고 했다. 흉이 될까 봐 안 먹는 줄 아는지, 밥이 깊어 집으로 가면서도 숙모는 팔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내일이면 쉬어서 버리게 될 텐데……라고 했다.

“쉬어서 버리면 안 되지.”

엄마가 헛소리처럼 말하면서 팔죽을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둘러앉아, 사랑하는 가족이 숨 끊어진 지 하루도 되기 전에 단지 썩을 것을 염려하여 내다 버린 인간들답게, 팔죽을 단지 설까 봐 아귀아귀 먹기 시작했다.<sup>15)</sup>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고등학교 교사였던 오빠는 의용군으로 징집된 후 다리에 부상을 안고 돌아온다. 당시 서울은 일반 시민도 좌우익으로 대치하였고 전세에 따라 자신의 이념을 숨겨야 했다. 오빠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틈바구니에서 다리 부상의 후유증보다는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리다 병사하였다.<sup>16)</sup> 오빠의 장례는 시신의 부패

15)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계사, 2008, 164면. 이하의 인용은 작품명과 면수만 기재한다.

때문에 급히 치러졌으며, 가족들은 오빠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갖기도 전에 단지 음식이 ‘설까 봐 아귀아귀’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이나 가족들의 행위에 수치심을 느낀다. 이는 생존자들이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출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었으나 전쟁 상황, 식량의 부족으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인간의 품격을 훼손하면서 연명하는 개인의 비루한 모습을 가족을 상실한 유족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면 작가는 생존을 위해 각박해지는 인간의 일반화된 모습을 돈암 시장의 묘사에서 드러내고 있다.

돈암시장의 순대 냄새와 꿀꿀이죽 냄새가 뒤섞인 냄새, 그 냄새에 오장이 뒤틀리는 듯한 식욕을 이기지 못해 지친 짐승처럼 정기 없이 번들대는 눈과 어두컴컴한 얼굴로 두 가지 음식의 영양가와 부피와 주머니 사정을 암산으로 산출해내느라 발걸음을 질정 못하는 막벌이꾼.(…중략…) 파리가 웅웅대는 푸줏간에서 수시로 가족 핵대에다 식칼을 갈면서 똑같이 쉬파리나 불려들이는 건고등어 장수를 은근히 알보는 늙은 백정. 악착같이 한 눈금이라도 더 덤을 받으려는 암채 손님을 핑계로 다섯 눈금쯤은 더 나가도록 얹은뱅이저울을 조작해 놓고 거드름을 피우는 밀가루와 설탕가루 장수.

봉지쌀에서도 단 한 움큼이라도 벗겨먹으려는 싸전 영감과 안 속으려는 어린 새댁 간의, 뒷박을 평평하게 미는 방망이를 가지고, 배가 너무 부르다거니, 눈같이 뻘? 나처럼 훌쩍한 방망이로 미는 싸전 있으면 나와보라거니 하는 사생결단의 치열한 싸움. 온종일 목이 쉬게 싸구려와 떨이를 외쳐대도 물건은 안 줄고 허기만 지는 푸성귀와 과일 장수. 점심 거르고 새우젓 조금 집어먹고 냉수 한 대접 마시는, 고릿한 냄새가 몸에 밴 것갈 장수. 그런 것들 사이를 놀이터삼아 요리조리 싸다니다 운수 좋아 남의 걸 슬쩍 해서 입정질해도 야단맞지 않는 장돌뱅이 새끼들. 이런

16) 오빠의 죽음을 다룬 논문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박완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33집, 국어국문학회, 2003.;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생존의 마지막 발아 속에서도 눈에 띄게 초연하고 고상하고 알토란같은 장사가 있었으니 바로 미제 장수였다.(『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173-174면)

돈암 시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은 다양하지만 박완서의 눈에 비친 시장의 모습은 ‘음식’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음식/식재료를 팔고 있는 상인과 먹을 거리를 사야하는 구매자 사이의 치열한 심리전이 박완서의 묘사력에 의해 생생히 드러나고 있다. 박완서 소설의 힘은 무엇보다도 진저리쳐지도록 질기고 촘촘한 세부묘사와, 호락호락 대상에 몰입하지 않은 비판적 이해에서 우리나라<sup>17)</sup>는 평가는 매우 적확하다고 하겠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인간다운 품격과 애도의 시간마저 제대로 지닐 수 없었던 것, 돈암 시장의 상인과 소비자들이 한 움큼의 음식 때문에 날카롭게 대치하였던 것은 따지고 보면 ‘궁핍’에서 비롯되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 생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는 일상적인 예절 및 윤리와 법도를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박완서는 생존자들의 모습을 남루한 인간의 모습이나 허무의식<sup>18)</sup>에 빠진 모습으로만 그리지는 않았다. “생존의 마지막 발아”에서 살아남은 자의 또 다른 내면세계가 인간다움에 대한 가치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 하진(‘나’)의 내면세계와 주변 인물인 올케 ‘혜순’과 어린 소녀 갑희를 주목하면 생존 다툼의 각박함 속에서도 한 줄기 인간애를 발견할 수 있다. 혜순은 하진과 함께 가족을 부양한 여성으로

서 전쟁 미망인이 되어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의 ‘억척 어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올케는 산업화 시대의 억척스럽고, 속물화된 여성과 달리 건강한 사고를 지닌 긍정적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

며칠째 수제비만 먹은 날이었다. 수제비도 수제비 나름이었다. 올케는 수제비 양을 늘리는 데 천재적이었다. 이 집에 김장김치는 넉넉했으므로 김치를 듬뿍 썰어 넣고 국을 끓이다가 수제비는 조금밖에 떠 넣지 않았다. 허연 김치 줄거리와 수제비는 거의 식별이 안 됐다. 올케는 그런 눈의 착각을 교묘하게 이용해 수제비를 공평하게 푸는 척하면서도 불공평하게 퍼 담았다. 쫄깃한 수제비 건더기인 줄 알고 씹으면 시큼한 김치 줄거리였다. (...중략...) 그러나 올케 몫은 몇 점의 밀가루 건더기도 들어 있지 않은 순전한 우거짓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수도 없었다. 올케는 이 집에 반 자루가량 남아 있던 밀가루자루 주둥이를 틀어쥐고 발발 떨었다. 내가 올케 입장이라면 부엌에서 배불리 훑쳐 먹고 나서 상을 들여갔을 것이다. 올케가 존경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에게 대들고 싶은 걸 참고 순종한 건 존경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본능적인 생존 감각 때문이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29-30면.)

하진은 올케가 가족들에게 수제비를 담아주는 행위를 보며 그녀에게 “존경”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음식 앞에서 자신의 본능보다 타자에 대한 돌봄이나 배려가 먼저였던 올케의 인성에 감동한 것이다. 올케 혜순이 지닌 건강한 세계관은 여러 장면에서 나타난다. 서울에서 위장한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동안 빈 집의 음식들을 도둑질해 오는 행위에 대해 가족들이 수치스러워할 때 ‘보급투쟁’이라는 명명으로 애써 수치심을 감추어 주었다. 또한 다리 부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남편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신한 몸으로 부상당한 남편과 시집 식구들을 부양하는 헌신적인 모습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갇힌 전근대적 여성으로 규정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하진에게 각인된 올케의 모습은 생존 때문에 비루해지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자의식을 지닌 여성이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비판보다 희망을 간직한 여성으로서 하진에게 ‘우애’를 느끼게 한 인물이다.

17) 입순만, 「분단극복을 향한 문학의 가능성」,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해설, 세계사, 2008, 287면.

18) 인간의 생존을 허무하게 바라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생존이 가지는 본질은 고뇌라고 보았다. 인생은 생존을 위한 피로운 투쟁의 연속인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고통이 얼마나 적었는지로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근본은 매우 단순한 육체적 쾌락과 고통이기 때문이다. 즉 행복과 불행은 건강, 맛 좋은 음식, 추위와 습기로부터의 보호, 성욕 충족 등을 누리거나 반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즉 인간의 생존은 궁핍과 권태를 양극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서 ‘허무의식’을 느낀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생존과 허무』, 함현규 역, 빛과향기, 2006, 24-30면, 참조.

하진과 올케 혜순의 모습은 박완서가 추구한 50년대의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전쟁 시기를 동지처럼 이겨낸 두 여성은 무력한 (시)어머니와 달리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수동적인 여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가족애를 지녔으며, 인간존재에 대한 애정을 지닌 인물이다.

또 다른 한명은 피난민 중에 만난 소녀 ‘갑희’이다. 갑희는 생명을 존중하고, 돌봄의 태도를 보여준 소녀이다.

“곧 알게 돼요. 곧 돌아오실 테니까.”

그리곤 입을 아무지게 다물고 자기 할 일만 한다. 방에선 몸부림을 끝낸 혜순의 오열이 아직도 처절한데 부엌에서 밥 끓는 냄새, 콩치 줄이는 냄새, 한창 이글거리는 아궁이의 불꽃, 이런 것들이 출고 배고프다는 가장 소박하고 원초적인 고민을 어루만지고 행복에 가까운 즐거움조차 일게 한다.

갑희가 밥을 퍼, 제법 깔끔하게 차린 상에 엮어 방에 들여놓을 즈음서 여사는 그림처럼 돌아왔다. 봉두난발에 옷이고 손발이 흙투성이였다.<sup>19)</sup>

인용문은 오빠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어머니 서 여사를 돌봐온 갑희의 모습이 그려진 대목이다. 하진네 가족은 오빠의 이데올로기를 입증하기 위해 북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상자인 오빠와 어머니는 서울에 남고 하진과 올케만 북으로 떠났다. 인민군의 눈을 피해 교하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오빠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다.

갑희는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고 충격 속에 지내는 서 여사를 돌봐왔으며, 비통한 소식을 들은 하진과 올케를 위해 묵묵히 ‘음식’을 장만하였다. 슬픔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을 위로할 줄 아는 모습이 어린 소녀에게 담겨 있는 것이다. 한편, 올케의 오열을 들으면서도 하진의 내면은 음식 냄새에 대한 원초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의 ‘행복에 가까운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음식은 인간 육

19)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06, 420면.

체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환유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식은 현저한 양가감정의 한 근원이 된다. 즉 음식은 항상 몸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지만,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자 커다란 즐거움과 만족의 원천이기도<sup>20)</sup> 한 것이다. 하진의 이런 모습은 충만한 생명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성찰적 인물로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환한 빛 속에 펼쳐질 어떤 식구들의 단면, 갓 잘라낸 나무의 단면에서 싱그러운 수액이 흐르듯이 인간들의 생활의 냄새를 질게 풍기는 선명한 단면들, 그녀는 벌써 먹을 것을 구하는 일 따위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사람 없는 산 위, 판잣집 촌은 향수와도 같은,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집요한 그리움으로 그녀를 고향하고 손짓했다.(『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307면)

인용문은 하진이 밤마다 행하는 ‘빈 집 도둑질’에 대한 그녀의 심정을 드러낸 대목이다. ‘도둑질’로 연명하면서도 오빠와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하여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진의 생각은 다른 데에 있다. 그녀는 밤나들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녀의 밤나들이에 대하여 어떤 평자는 ‘호기심, 사람살이에 대한 호기심’<sup>21)</sup>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이보다 더 주목할 것은 ‘그리움’이라고 본다.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 그 당시 하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강렬한 정서였던 것이다.

집안에 이미 상당한 식량을 확보한 이후에도 밤마다 ‘빈 집’을 찾아 나선 것은 그 곳에서 “서민의 숨소리”, “생생한 생활의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하진의 이러한 심정은 인간에 대한 그리움, 인간답게 살았던 시절에 대한 확인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갑희와의 만남도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진은 서술자라는 관찰자적 위치에서 전쟁을 통과하는 동안 그녀가

20) 데버러 럽턴, 앞의 책, 11면.

21) 정호웅, 「해설: 타자의 시선과 맞겨루는 주체」, 박완서, 『목마른 계절』, 2012, 448면.

몸담았던 세계의 이데올로기, 죽음, 음식 먹기 등의 상황에서 존경할만한 인간군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거나 관찰한 내용들을 피력한다. 그녀는 생존을 위한 비루한 행위를 하는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성찰, 인간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생존 때문에 비굴해진 인간에 대한 ‘증오’를 보이기보다는 건강한 사고를 유지하여 삶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완서는 생존의 허무를 그린 작가가 아니다. 그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보여주고자 한 작가이다. 그의 초기 작품은 생존을 위해 ‘먹기’에 치열했던 비인간적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지니고, ‘먹기’ 행위를 둘러싼 인간다움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태도가 자기 반성적이며 윤리적 주체인 하진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다.

### 3. 세속적 욕망과 ‘순정 시대’의 갈망

장편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흉년』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여성들의 결혼관, 애정관 등을 보여주고 있다. 서사의 중심에 있는 여성들은 도시의 중산층으로서 그들의 세속적 욕망과 속물성, 이중성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작가의 관심은 중산층의 그러한 삶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순수한 인물, 즉 순정한 시대에 대한 갈망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흉년』은 동시기에 연재된 작품이다.<sup>22)</sup> 중산층 여성들의 욕망, 중산층의 형성과정 등이 그려지고 있는

22) 연재를 먼저 시작한 것은 『도시의 흉년』이다. 이 작품은 『문학사상』에 1975년 12월호부터 1979년 7월까지 근 4년 동안 연재한 후, 1979년에 문학사상사에서 출판하였다. 『휘청거리는 오후』는 1976년 1월 1일부터 『동아일보』에 1년 동안 연재하여 1977년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하였다. 연재를 먼저 시작한 것은 『도시의 흉년』이지만 단행본 발간은 『휘청거리는 오후』가 더 빠르며, 두 작품은 동시에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점은 동일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후자의 작품이 작중인물의 시선으로 서술되는 가운데 중산층의 세속적인 삶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부모의 물질적 풍요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으려 하는 주인공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휘청거리는 오후』는 세 딸들의 결혼문제를 중심으로 한 70년대 한국 중산층의 풍속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오만과 편견』의 어머니가 딸들의 성공적인 결혼을 계획했듯이, 이 작품은 한국적 풍토에서 결혼의 생태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세태소설이라 불릴 수 있는 이 작품에서 음식문화는 70년대 결혼시장에 상품처럼 등장한 젊은 남녀의 의식과 가정에서 점차 왜소화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초희 아버지 허 성 씨가 전직 교감 선생에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된 배경에는 세 딸을 상류층으로 시집보내고자 하는 아내의 욕망이 자리한다. 아내는 가내수공업 공장 규모의 남편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부풀려 중매장에게 말하고, 딸들의 혼수 준비를 위해 공장의 운영 상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중산층의 체면과 허영, 사치를 중시하는 아내의 생활방식은 허 성 씨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 왔다고 자부하는 허 성 씨는 점차 가족 사이에서 소외감, 무력감을 느낀다. 그런 내면이 음식을 대할 때마다 솟구친다.

허 성 씨는 시척지근한 헛구역질과 함께 뱃속 같은 곳에서 울화통이 거칠게 치솟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

말라 비틀어진 빵조각과 마가린 토막과 찬 우유가 한 컵 놓인 황량한 식탁을 와르르 거꾸로 세우고 싶어 온몸의 힘이 일순 다리로 몰린다.<sup>23)</sup>

아내는 70년대 중산층이 누리는 문화생활로 집안의 삶을 변화시켰다. 온돌문화에 익숙한 허성 씨는 “신식 입식(立式) 부엌의 식탁”과 서구식 음식들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공

23)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 세계사, 2006, 77면. 이후의 인용은 작품명과 면수만 기재한다.



장에서 사고로 잃은 자신의 손가락, 즉 ‘도막난 왼쪽 손’을 보노라면 자신의 대우가 더욱 보잘 것 없이 여겨진다. 새로운 입식문화는 마땅히 그가 누릴 가장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는 자신만을 “안방 아랫목에 궁둥이를 붙이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밥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말 한마디 못하고 빼앗기고 있는 자신에게 부아가 치밀고 억울”(12면)한 마음이 강하게 든다.

이 작품에서 결혼에 대한 세속적 환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딸딸 초희와 그녀의 맞선 상대인 조광욱이다. 호텔에서 진행되는 맞선 장소에 나온 허성 씨는 모든 절차가 불편하기만 하다. 특히 신랑감으로 나온 조광욱의 말끔한 모습은 호텔 커피숍에서 본 ‘양중맞게 예쁜’ 케이크와 닮아 있어 정이 가지를 앓는다. 남성 인물을 이렇게 케익에 비유한 것은 잘 만들어진 케익의 인공성과 신랑감 조광욱의 ‘인공적’인 모습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초희는 맛없음을 철저하게 확인하려는 듯이 천천히 오래오래 튀김을 찢싹었다. 그녀는 마음이 맞는 남자와 뭘 먹을 때 그게 아무리 하찮은 싸구려 음식이라도 얼마든지 맛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변두리 다방의 커피라도, 길바닥에서 파는 핫도그라도 전연 새로운 진미를 내게 하는 남자가 있다는 법인데.

이런 초희와는 아랑곳없이 광욱은 잘 먹으면서도 잘 지껄었다. 초희는 남자의 입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나불대는 걸 보는 게 지겹다. (『휘청거리는 오후』, 35면)

조광욱에 대한 인상은 초희도 아버지와 동일하다. 초희는 자신의 인생 목표가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긴 해도 상대방 또한 자신과 유사한 인생관을 지닌 모습에서 동류의식의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굴욕감을 느낀다. 집안 배경과 자신의 학벌, 외모에 대하여 과신하고 그에 합당한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조광욱의 모습은 중산층 남성의 이기적인 모습을 대표한다. 그는 처음 만난 여성 앞에서 미식가연하는 태도와 ‘식도락’과 ‘미식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초희에게 자신의 알팍한 지식을 뽐내는 태

도를 일관한다. 초희는 상류층과 결혼하기 위하여 직업적인 중매가 추천하는 결혼시장에 나서긴 했으나 싸구려 음식도 ‘맛있고 즐거울 수’ 있는 연애 경험은 있는 여성이다. 세속적인 결혼관을 지닌 젊은 남녀의 불온한 만남이 음식문화를 통해 그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초희, 우희, 말희 세 자매가 연애와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매끼리 서로 경쟁을 하거나 경멸하는 모습을 전지적 시점으로 보여준다. 중산층의 허영적인 삶에 대한 비판이나 자각의 태도는 막내딸 말희에게 희미하게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나온 『도시의 흥년』에서 보여주는 자의식 강한 여성의 주체적 삶의 과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지닌다.

『도시의 흥년』은 큰 딸 수희, 작은 딸이자 작품의 화자인 수연, 그들의 율체가 되는 순정의 연애와 결혼관, 가치관 등을 1970년대 서울의 신흥부자를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다. 속물자본주의의 세태를 풍자한 이 소설은 음식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십 여 편의 장편소설 중에서 돋보이는 작품 중 하나이다. 음식 이야기와 입에 대한 묘사가 풍성하게 등장하면서 작중인물의 성격화나 주제 구현에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첫 단락부터 음식 이야기로 시작하여, 결말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작품 첫 단락에 주인공의 음식에 대한 단상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를 통해 주인공 ‘나’의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로 스낵 가게다. 내 건강한 식욕이 멍치개에서 음흉한 소리를 내며 꾸루룩댔다. 그러나 나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먹는 쾌락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누리길 바랐고, 또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곧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에 굳것질 따위로 저녁 맛을 잡쳐 놓을 수는 없었다.<sup>24)</sup>

24) 박완서, 『도시의 흥년』, 세계사, 2006, 13면. 이후의 인용은 작품명과 면수만 기재한다.

‘나’ 지수연은 쾌락(육망)의 즐거움을 알고, 그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즉 육망을 조절할 수도 있는 이성적 인물이다. 그녀는 풍족한 집안 환경에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재원이지만 자신의 집안이 누리는 부에 대하여 경멸감을 지닌 당돌한 여성이다. 이런 여성의 모습은 박완서 소설의 여성인물에 대한 총평격이라 할 수 있는 ‘오만한 여성’<sup>25)</sup>에 해당한다.

수연네 집안이 누리는 부는 대대로 내려오는 세습적 부가 아니다. 부의 형성은 한국전쟁 당시 엄마의 빈 집 ‘도둑질’과 양색시 장사로 이루어진 부끄러움의 산물이다. 이를 알고 있는 수연은 자기가 누리는 풍요 외에도 엄마의 끊임없는 물욕과 중산층을 모방하는 어설픈 행위, 경제적 무능을 은폐하려는 아버지의 외도, 검사와 결혼한 언니 수희의 불륜 행위, 그리고 일탈행위에서 빚어진 자신의 성에 대하여 경멸감을 드러낸다. 수연의 가족에 대한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는 부끄러운 부의 축적과정뿐만 아니라 자신을 억압하는 성적 규제도 크게 작용한다. 이는 자신과 오빠 수빈이 남매 쌍둥이라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남매 쌍둥이에 대한 속신<sup>26)</sup>을 맹신하는 할머니의 고착화된 남아선호 사상이 그녀의 성격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의 관찰자적 시선에서 연민의 대상으로 작용하는 인물은 쌍둥이 오빠 ‘수빈’이다. 그는 엄마의 허영과 육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25) 김은하는 오만한 여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박완서 소설의 전편에는 착한 여자의 부류에 들지 않는 게 분명하지만 악녀로 치부할 수도 없는 오만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녀들은 비록 중산층 여성으로서 기득권을 누리지만 남성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들의 권위를 냉소한다. 오만함은 이 기주나 허위의식의 소산이라기보다 근대여성들의 이중적인 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은하, 개인사를 통해서 본 여성의 근대 체현, 『여성과 사회』 제16집, 한국여성연구소, 2005, 332면.

26) 할머니는 남매쌍둥이는 근친상간을 하게 된다는 옛 속신을 믿는 인물이다. 자신이 그 피해자라는 사실이 작품 말미에 드러난다. 그의 남편(수연의 할아버지)이 남매쌍둥이로서 자신의 여동생인줄 모르는 여성과 사랑을 하고, 근친상간까지 하게 되어 결국은 자살하는 슬픈 개인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수연과 수빈이가 남매 쌍둥이라는 점을 두려워하고, 수연을 극도로 미워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형성된 수연은 도발적이고 오만하면서도 풍부한 물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지니고 있다. 늘 일탈을 꿈꾸고 위악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수연의 당돌한 성격을 음식으로 보여준다면, 건강하지 못한 그의 가정은 음식을 장만하는 부엌의 풍경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힘차게 살아 있는 곳은 오직 부엌뿐이었다. 흡사 배의 기관실처럼 후텁지근하고 부산하고 기계들이 살아 움직였다. 엄마까지 나와서 법석을 떨었다. 가스 기구가 수대로 파란 불을 넘실대고, 전열 기구마다 무시무시한 열을 뿜으며 허덕대는 게 우리 힘으론 도저히 멈추게 할 수 없는 광기 같은 게 느껴져 보고 서 있기가 불안했다. 엄마가 아무리 한가운데 서서 뭘 하는 척 설쳐도 손님처럼 어설픈 보였다. (『도시의 흉년』 1권, 37면)

수빈이가 군 입대를 하는 날, 부엌의 모습은 ‘광기’를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다. 귀한 아들을 환송하는 아침을 장만하기 위해 엄마가 부엌에 들어와 있지만 그녀는 ‘손님’처럼 어색할 뿐이다. 엄마는 『목마른 계절』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을까』에 나오는 울케/혜순과는 다른 성격의 인물이다. 엄마는 전쟁 중에 행한 도둑질에 대하여 부끄러움, 죄책감을 지니기는커녕 자식들을 굶기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태도를 드러낸다. 즉 자신의 행위를 모성애로 합리화하는 여성이다. 그런 엄마가 이끌고 온 자신의 집은 한 척의 ‘배’와 같다. 그런데 항해를 하는 배는 이제 ‘우리 힘’으로는 멈추게 할 수 없는 ‘광기’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 수연에게는 그러한 집안의 불안이 감지되었다.

어머니는 한때의 가난을 풍요로운 음식과 물질로 보상하려 한다. 엄마가 가장 내세우는 음식은 ‘고기’이다. 아들의 입대와 면회 날, 첫 사위 상견례 등 엄마는 중요 행사 때마다 엄청난 양의 음식으로 식구들에게 부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엄마는 ‘손님’처럼 ‘어설픈’ 보이는 낮은 인물이다. 곧 이 집의 몰락과 엄마의 몰락이 예견된다.

이 작품에는 많은 여성들이 개성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sup>27)</sup>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순정’이다. 순정은 이 작품에서 수연의 어머니와 대척점에 놓인 여성이다. 어머니 세대가 이루어 놓은 물질적 풍요의 어두운 면을 제거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엄마가 보여주는 물질적 욕망이 ‘어머니 입 안에 가득 있는 금니’의 비유에서 강렬히 드러났다면 엄마와 대조되는 순정의 외모는 ‘건강한 이’가 압도적이다. 순정은 가난한 집안 출신의 간호대 학생으로서 평범한 외모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평범함과 초라함은 시선을 끄는 힘이 있다. 가난에도 궁기가 들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건강한 사고에서 발산된 것이라 하겠다. 수연은 그녀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었던 만큼 자신이 갖지 못한, 그리고 어머니와 너무나도 다른 수연에게 양가적 감정을 갖는다.

엄마는 가난한 순정이를 아들의 연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녀가 불행해졌을 때 그를 진정으로 돌본 사람은 순정이다. 엄마는 경제적 몰락과 남편의 외도를 안 다음 반신불수가 된다. 혼수상태에서 돌아온 엄마는 언어 능력마저 상실했는데 어눌하게나마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 한 말은 “배고파 죽겠다”였다. “온갖 욕망이 모조리 식욕으로 변질한 것처럼 엄마는 오로지 먹는 것만 탐했고”(3권, 287면) 집을 떠나 있는 ‘나’ 수연이가 가끔씩 들러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음식을 주는 행위밖에 없었다. 이런 엄마를 가장 정성들여 돌보는 사람은 순정이고, 엄마는 비로소 순정의 진정성을 느끼고 눈빛으로 이에 호응한다. 배설물로 오염된 엄마의 몸을 깨끗이 씻기는 순정의 태도에서 수연은 “기묘한 품위”를 발견하며, “엄마에게 인절미를 먹이는 일에 심한 열등감”(3권, 319면) 느끼게 된다.

순정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광기로 가득 찬 인간의 욕망을 치유할 수 있는 이상적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70년대 급부상한 신흥부자들의 속물주의 안에 들끓고 있는 욕망을 순화시킬 수

27) 주인공 수연을 비롯하여 어머니, 언니, 할머니와 대고모할머니, 아버지의 첩, 수연의 대학 친구, 수연의 애인 구자현을 돌보는 성미영 등 매우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

있는 인물인 것이다. 이 인물을 보면 ‘순정’이란 단어의 개념을 살펴본 한 연구가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 연구에 의하면 ‘순정’이라는 단어는 50년대 『동아일보』 기사에 흔하게 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28)</sup> 박완서가 이런 단어를 작중인물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보다 50년대 이후부터 70년대까지 유행한 순정소설의 영향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해본다.

물질적 욕망과 성적 욕망으로 들끓는 가정을 전복시키는 데 도화선이 된 것은 수연과 수빈의 속옷차림 포옹이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가족들의 물이해는 할머니의 속신이 현실화되었다는 오인이었으며, 나비효과처럼 엄마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수연의 행위는 엄마의 불륜, 아버지의 외도사실 폭로, 엄마의 반신불수 상황으로 치달으며 이 집안의 물질적 풍요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가정의 급속한 변화 가운데서 ‘나’는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학생운동의 핵심 인물인 애인 구주현에게 집중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여성인물 순정과 남성인물 구주현을 통해 70년대 중산층의 세속적 욕망을 대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수연은 애인의 수감생활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이때 풍요로운 생활 속에 갇혀 지낸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음식을 통해 그려진다.

여기서 선 채로 앓은 채로 시퍼런 입술로 김도 털 오른 호빵을 아귀 아귀 먹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나도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은 묘한

28) 1950년대 ‘순정’이라는 표제는 만화에만 붙였던 용어는 아니다. 만화는 195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등장했고, ‘순정’과 ‘만화’가 장르적 의미로 확고하게 교착된 것은 적어도 1970년대가 지나서 가능한 일이었다.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대중잡지들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통속소설들을 게재하게 되는데, ‘순정소설’도 그 중 하나였다. 순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純正, 純情이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이 용례들의 쓰임에서 “純”이란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 서은영, 「순정 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대중서사연구 제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153-155면, 참조.

강박관념을 느꼈다. 분명히 식욕은 아니었다.

구주현이 감방 속에서 탄 수감자들과 동등하게 살기를 버리고 있다면 나도 저들보다 잘난 체해서는 고상한 체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리랄까 연대감 같은 거였다.

나도 호빵을 하나 샀다. 김이 덜 오른 호빵의 스펀지 같은 감촉이 뜨악한 식욕을 아주 없게 했다.

나는 그것을 먹지 않았다. (...중략...) 솔직히 나는 호빵을 먹기가 싫었던 것이다. 뜻만 겹쳐했지 입은 아마도 오만했던 것이다. (『도시의 흥년』 3권, 59면)

수연은 구주현에게 면회를 가면서 다른 수감자의 가족들을 관찰한다. 그들이 면회를 기다리는 동안 “아귀아귀” 먹는 호빵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도 의식적으로 서민음식인 호빵을 먹으려 한다. 그러한 심리에는 그들과 연대감을 지니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연은 호빵을 먹지 못한다. 그녀의 미각은 중산층의 입맛에 길들여진 상태이기에 거친 음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구주현의 행동처럼 그들과 함께 “김도 덜 오른 호빵”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다. 수연은 자신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하여 “뜻만 겹쳐”하고 여전히 “오만”한 모습이라고 스스로 비판한다.

그녀는 출옥이후 낙향한 구주현을 만나기 위해 그의 고향을 방문한다. 어색한 만남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편만한 분위기로 바꾼 말은 그녀의 “배고파요”라는 말이었고, 그녀를 위해 구주현은 정성을 들여 식사를 장만한다. 그의 집을 구경하는 동안 가장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아버지가 장만해 놓은 새 그릇들이다.

캐비닛 위엔 전기밥솥, 전자자, 에어포트, 테플론 프라이팬, 이런 것의 뜯지 않는 상자가 쌓여 천장과 맞닿고 있었다. 그런 것들은 미닫이 위 선반 위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스테인리스 반상기, 범랑(인용자-범랑) 공기세트, 코발트 아이론, 그리고 포장하지 않고 층층이 쌓인 범랑(인용자-범랑) 냄비. 금딱지가 붙은 양은술 등…….(『도시의 흥년』 3권, 351-352면)

구주현과 수연, 두 사람의 귀향을 기다렸던 것처럼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는 살뜰하게 가재도구를 갖추어 놓았다. 이렇게 이 작품은 시작부터 결말까지 음식, 부엌, 식사장면, 식기들의 모습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은 한국전쟁 이후 발전과 개발의 시대에 접어든 한국인의 마음의 상반된 단면들을 흥미롭게 보여준다.<sup>29)</sup> 그것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새로운 계층을 형성한 중산층에 대한 해부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과 그러한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려는 주체적 삶의 추구를 대조적으로 그린 것이다.

한편, 작가가 보여주는 순정이의 행동과 수연이가 구주현의 고향에 정착할 것으로 암시하는 소설의 결말은 가부장적 사회 속으로 회귀하는 여성의 모습이기도 하여 한계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

#### 4. 기억과 노스탤지어, 그리고 어머니

박완서 등단 무렵의 장편소설은 전쟁과 분단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였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산업화를 배경으로 한 도시 중산층의 허위, 속물성을 풍자적으로 드러낸 이야기가 중심이었다. 90년대에 이르면 자서전적 서사에서 유년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부각시킨 성장서사와 노년층에 대한 관심으로 그 주제는 더욱 다양화된다. 이 장에서는 유년시절, 즉 ‘충만한 동일성 세계’<sup>30)</sup>에 대한 그리움을 음식의 문학적 재현으로 보여준 것을 살펴볼 것이다.

성장서사이자 자전적 소설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는 고향의 음식, 음식문화에 대한 묘

29) 차미령, 「생존과 수치: 1970년대 박완서 소설과 생존주의의 이면(1)」,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451면.

30) 권명아, 「문학적 연대기」,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53면.

사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소설에 나타난 압도적인 음식 이야기는 기실 작가의 음식 체험, 음식에 대한 추억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는 결국 행복했던 유년을 기억하는 방식으로서 노스텔지어의 감성 지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박완서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기는 했으나 아버지를 대리하는 할아버지, 숙부, 오빠의 사랑으로 외롭지 않은 유년을 보냈다. 자서전적 소설이나 에세이를 토대로 할 때, 아버지의 부재와 전쟁의 고통이 힘들기는 했으나 유년과 청소년 시절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허기를 드러내는 궁핍한 가계는 아니었다. 명절과 세시 절기마다 풍족한 음식과 특식을 즐길 수 있는 가족 문화가 드러난다. 음식의 문학적 재현이 풍부한 것은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동경, 그 시절 음식에 대한 향수, 자신의 미식 체험에 대한 회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은 자전적 소설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잘 나타나 있다.

할아버지는 나를 내려놓고 나서 두루마기 주머니에서 먹을 것을 주섬 주섬 꺼내 손에 쥐여 주는 것을 잊으신 적이 없었다. 노란 편지봉투에 싼 미라사탕 아니면 잔칫상에서 염치 불구하고 집어넣었음직한 약과나 다식 따위였다. 그런 것들을 맛보느라 할아버지 손목을 놓고 깡충깡충 앞장서 뿔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눈꼴이 시다는 편잔을 들을 지경이었다.<sup>31)</sup>

인용문에는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모습이 드러난다. 외출한 할아버지의 귀가를 몹시 기다리는 이유에는 할아버지가 챙겨오는 다양한 군것질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군것질’은 어린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기에 ‘허끝의 감각’으로 느끼는 만족보다 정신적 만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사랑, 특히 영향력 있는 연장자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신감은 유년시절부터 자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

31)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 2007, 17면. 이후의 인용은 작품명을 ‘싱아’로 표기하고 면수만 기재한다.

로 본다.

고향에 대한 향수는 풍요롭고 싱그러운 고향의 자연을 떠오르게 한다. 처음 시작한 서울 생활은 현저동 숲에서 맛본 아카시아꽃의 비릿한 맛으로 각인되어 고향을 더욱 그리게 하였다.

아카시아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서였다. 잘 먹는 아이는 송이썰 들고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 먹듯이 차례차례 맛있게 먹어 들어갔다. 나도 누가 볼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 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척지근했다. 그리고는 헛구역질이 났다. 무언가로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불현 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 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짙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꺾꽂이를 길이로 벗겨 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 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 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싱아』, 76-77면)

우리가 갈망하는 어린 시절의 음식은 우리가 자란 장소와 시간과 특별히 결부돼 있기 마련이다.<sup>32)</sup> 도시의 아카시아꽃은 고향의 상징인 ‘싱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물이 아니다. 그것은 “비릿하고 들척지근”하고, “헛구역질”을 유발했으며 무언가로 “들뜬 비위”를 가라앉혀야 할 것 같았다. 도시적 비릿한 맛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향의 맛, “싱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향 산천에 지천으로 흐드러진 자연들은 유년시절의 중요한 군것질거리이자 소일거리였다. 화자가 회상하는 자연에서 얻은 군것질은 매우 다양하다. “어려서부터 삼시 밥 외의 군것질거리와 소일거리”를 산과 들에서 구하였음이 드러난다. 대표적인 것이 “뽕기, 짙레순, 산딸기, 칙뿌리, 메뿌리, 싱아, 밤, 도토리” 등이었고, 자연은 어른들에게도 “산나물이나 버섯”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 신선한 자연의 군것질과 어른들을

32) 비 윌슨, 『식습관의 인문학』, 이충호 옮김, 문학동네, 2017, 134면.

위한 산나물 채취의 기억은 분단의 고착으로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없는 노년의 작가에게는 매우 애뜻한 대상임에 틀림없다.

‘나’는 어린 나이부터 미각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음식으로 풍족한 집안일뿐만 아니라 오빠의 까다로운 식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가 누릴 수 있는 음식들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차레지낼 때 탕에만 겨우 쇠고기를 쓰고 편수나 누름죽, 녹두지짐 등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는지라 오빠에게 따로 계장이 나왔다. 나는 오빠가 숟가락, 젓가락을 다 동원해 깨끗이 파먹은 계딱지를 물려받아 그 안에다 계장 간장을 조금만 치고 밥을 비벼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전에도 할아버지 상에서 곧잘 그 짓을 했었다.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계딱지라 해도 그 안에다 비벼 먹으면 밥그릇에 다 비벼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

게는 전국적으로 파주 게가 유명하다지만 우리 고향 게 맛도 그에 못지않았다. 민물게는 씨가 말라 계장 맛을 모르는 요새 사람하고는 안 통하는 얘기지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먹어 본 음식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진미를 대라면 서슴지 않고 계장을 대리라. 논에서 벼가 누렇게 익을 무렵이면 암게는 딱지 속에 고약처럼 검은 장이 딱 찬다. 이때 담아 오래 삭혔다 먹는 계장 맛은 아무리 극찬을 해도 모자라 열이 먹다 아홉이 죽어도 모르는 맛이라는 좀 야만적인 표현을 써야만 성에 찬다. (『싱아』, 104면)

오빠는 명절에 돼지 잡는 장면을 본 이후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식성으로 변하였다. 그를 위해 음식 장만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했고, 이렇게 마련한 음식들은 ‘나’에게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에 일찍부터 미각이 발달할 수 있었다. 작가가 자랑하는 고향의 음식 중에 제일 잊길은 ‘간장계장’으로 드러난다. ‘간장계장’에 대한 예찬은 박완서의 여러 에세이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도 짧게 등장한다. 어린 나이에 간장계장을 맛있게 먹는 법을 터득하는 모습은 행복한 유년 시절의 한 장면이라 하겠다.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맛에 대한 감미로운 기억은 교화로 떠난 피난 시절 특히 강렬하게 드러난다. 소만 무렵의 굴비 말리기,

복중의 민어찌개, 벼가 누렇게 익어갈 무렵 민물게로 장 담그기 등 시식(時食)에 대한 황홀한 추억은 맛에 대한 기억이 단순히 개인적인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일의 절차,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교감과 인간적인 존엄함에 대한 기억<sup>33)</sup>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비 윌슨의 얘기처럼 전쟁포로로 자유를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음식이 고향의 음식이듯<sup>34)</sup>,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된 상황은 고향의 음식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고향에서 누린 단란한 시간을 갈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완서가 유년 시절에 즐겨 먹던 음식과 함께 또 하나 그리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였던 그릇이다. 바로 ‘놋바리’인데 여기에는 어린아이의 자존감이 담겨 있는 형상을 보여준다. 고향 박적골에서 서울의 현저동으로 분가하였을 때, ‘나’의 놋바리는 장롱에 놓여 있는 모습만 나온다. 이 그릇에 대한 애뜻한 묘사는 자전적 소설에서는 형상화되어 있지 않고, 『도시의 흥년』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모네 집에는 내 돌날 장만했다는 내 놋바리가 있다. 우리 집으로 옮겨올 때까지 이모는 내 밥을 늘 거기다 퍼주었다. 이모는 내 생일에 뭘 잘 차려주진 못했지만, 생일 전날 우선 고운 기왓장 가루로 내 놋바리를 은빛이 되도록 닦는 일부터 했다.

그리고 생일날은 미역국을 맛갈스럽게 끓이고 내 바리에다 흰 밥을 제일 먼저 소복이 퍼담았다. 이모는 생일날 생일의 주인공 밥을 제일 먼저 퍼담는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세상에 바리처럼 양증맞고, 암팡지고, 여성적인 그릇이 또 있을까. 아가리가 좁고 몸체가 뚱뚱하고 팽파짐하게 퍼진 게 꼭 여인의 엉덩이 같다. 그리고 뚜껑의 생김새라니. 탕탕 불은 젓무덤 모양에다 꼭 젓꼭지를 닮은 꼭지까지 달려 있다.(『도시의 흥년』, 296면)

어린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이 놋그릇에 담겨 있다. 할

33) 이선옥, 「박완서 소설의 다시쓰기: 딸의 서사에서 여성들 간의 소통으로」, 『실천문학』, 실천문화사, 2000, 65면.

34) 비 윌슨, 앞의 책, 133면.

머니의 속신 때문에 6살까지 이모의 딸처럼 자라온 주인공 수연에게 생일날의 조출한 상처림은 마음의 평화를 주는 의식이었다. 늦바리의 앙증맞은 모습, 특히 여성스러운 모습은 여성성의 정체성을 무의식중에 각인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은빛’이 나도록 반짝거리게 닭은 늦바리의 모습과 거기에 담은 소복한 밥은 어린 아이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마음까지 담은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수용하면서 자란 수연 이기에 여성으로서의 젠더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성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자전적 소설로 돌아가 보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나타난 음식이 다른 작품들과 도드라지는 점은 음식문화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리움을 은연중에 드러낸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음식문화는 물장수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당시 서울 서민들의 모습이라 하겠다. 현저동 주민들 사이에는 산동네까지 물을 지고 오는 물장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풍속이 있었던 것 같다. 이때 어머니가 물장수에게 차려준 밥상은 여느 집의 밥상과 달랐다.

엄마는 남이야 그러건 말건 장을 봐다가 이것저것 나물을 무치고 고소한 기름냄새를 풍기며 부침질을 했다. 그 궁색한 살림에 고기가 다 들어왔다. 그러고는 이밥을 한 솥 지어서 큰 밥그릇에 푸는데, 아주 정확하게 밥그릇 위에다 밥그릇을 하나 더 얹어 놓은 것만큼 찜했다. 그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엄마만의 솜씨일 듯싶었다. 그렇게 차리려니 잔칫집 같은 기분이 났다.(…중략…) 밥뿐만 아니라 뭐든지 푸짐하게 담은 반찬을 물장수는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

그러면 엄마는 그 그릇들을 말끔히 비워 딱 그릇에 담아 목판에 받치고 조각조각 모은 상보를 덮어서 그가 가져가게 했다. 물장수 상은 워낙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다.(『싱아』, 68-69면)

엄마가 준비하는 물장수의 밥상은 그들의 식사와 비교해도 특별히 정성을 들인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궁핍한 살림에 ‘고기’와 ‘이밥’을 장만하고, 여러 가지 나물반찬과 부침까지 갖춘 성찬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박완서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은 이밥을 그릇 가득

퍼 올린 고봉밥의 모습이다. 물장수에게 예를 갖추는 어머니의 인품이 드러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읽힌다.

어머니는 ‘나’와 현저동 친구들과의 교제를 늘 경계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은 양반의식을 고수한 인물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무조건 ‘상것’을 경계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열이 유난히 강한 어머니에게 대학생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물장수는 존경의 대상, 동류의식의 대상이었다. 물장수의 밥상을 정성들여 마련한 어머니의 내면에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물장수에 대한 존경, 그의 밥상차리기로 전이된 것이고,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는 박완서의 마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이상화는 음식이 줄 수 있는 행복, 안락함, 안전, 즐거움을 통해 전달된다. 어린 시절에 대한 문학적 이상화는 상상 속의 잃어버린 현실, 즉 온전한 정체성과 주체와 객체 간 조화의 상태로 특징지어지는 황금기를 되찾고 싶어 하는 성인 남성의 판타지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sup>35)</sup> 르블랑은 ‘성인남성의 판타지’라 하였으나 음식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은 여성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박완서의 소설에서 알 수 있다.

## 5. 젠더의식과 정체성 구현

박완서 소설에서 음식을 통한 여성의 정체성 구현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나목』, 『서 있는 여자』,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등을 들 수 있다. 젠더의식의 짙은 등단작 『나목』에서부터 명료하게 나타난다.

『나목』의 중심서사는 전쟁 중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비통함, 삶 의 의욕 상실과 오빠의 죽음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딸의 자책감, 새로운 삶의 의욕이 대비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전쟁은 단순한 배경으로

35) 르블랑, 앞의 책, 40면.

작용한다. 중요한 것은 21세 젊은 여성 이경의 인간으로서의 존재감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어머니는 아들대신 ‘딸’이 생존한 것에 대하여 원망을 드러내고 딸 이경은 생존한 자식으로서 서운한 감정들을 인간적인 존재감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한 모녀의 생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음식이 ‘시척지근한 김치국’(105면)이다.

해가 1952년으로 바뀌고 나는 21세가 되었다.

설날 아침에도 나는 김치국이 반찬의 전부인 아침상을 받았다.

나는 며칠 전서부터 설에 만두를 해 달라고 어머니를 졸랐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시들한 대답을 했었는데 어머니는 기어이 내 기대를 허탕치게 하고 말았다.

시척지근한 김치국에 밥을 몇 숟갈 떠서 말아서 훌쩍훌쩍 들이 마시려 했으나 잘 안 되었다.

울적함이 쉽사리 달래지지 않은 채 목구멍 근처에 묵직하게 걸려 있었다.<sup>36)</sup>

어머니에게는 새 해, 명절 등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애정 없이 차려진 밥상을 대할 때마다 딸 이경은 좌절감을 느꼈고, 설날에 대한 기대감을 지녔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의식을 위하여 ‘김치국’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였으나 기대는 무너졌다. “살아 있는 건 변화하게 마련”이고 “변화는 생기를” 의미하며, 그 첫 걸음으로 “김치국에서 만두”로 바꾸기만 해도 “딸에게 싱싱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이경의 절규에 가까운 말에 어머니는 동요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모두 있던 행복한 시절의 어머니는 ‘화사한’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손질 안한 회색빛 머리”와 의치를 빼놓은 입술은 “마치 잘못 꿰맨 상처자국처럼”(167면) 주름이 있는 외양으로 변모하였고, 무엇보다 ‘김치국’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머니는 딸의 간곡한 요청에도 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경은 어머니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음식 먹기’이다.

그렇지 나는 결코 나를 가엾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나는 내가 조금씩 소중스러워졌다. 소중한 나를 배고프게 내버려둘 수는 더군다나 없었다. 발딱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그리고 어머니가 눈치채지 않게 소리를 죽여가며 밥상을 챙겼다.(『나목』, 141면)

딸의 늦은 퇴근과 저녁식사에 대한 관심조차 드러내지 않을 때, 이경은 그러한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기에 자신의 한 끼 식사 정도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삶의 희망을 잃은 여성 앞에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자신이 비루하게 여겨진 것이다. 그러나 이경은 곧 생각을 달리한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밥상을 차리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는 딸로서의 위상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깃들여 있다고 본다.

이경의 어머니와 대조적인 여성은 옥희도의 아내이다. 이경은 옥희도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그의 집에 방문하여 그의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가 하면 심지어 그들의 단칸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경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옥희도의 아내는 경계를 하거나 질투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와 같은 포용력으로 그녀를 받아들인다. 이경이 믿고 있는 옥희도에 대한 사랑은 실상은 불행한 딸이 겪는 존재감 상실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비롯된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옥희도의 아내는 이런 점을 이경에게서 발견한 것이리라.

그녀의 자상한 시중으로 낯선 집에서의 아침 소세가 조금도 불편하거나 견연쩍지 않았다.

따뜻한 콩나물국과 향긋한 김쌈이 놓인 아침상을 받았다. 나는 가정에 초대된 고아만큼이나 이런 밥상이 신기하고 눈부셨다.(…중략…)

점심때 휴게실에서 무심히 도시락을 끄르다가 잠깐 어리둥절했다. 김치 아닌 반찬들이 이상했다. 봉투에 넣은 김쌈, 콩자반, 계란말이. 옥희도 씨 부인의 정성스럽고 깔끔한 솜씨였다.(『나목』, 245면)

이경이 늦은 시간 옥희도의 집을 찾아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한 날은 어머니와 다툼이 있었던 날이다. 무례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옥희도

36)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02, 96면. 이후의 인용은 제목과 면수만 기재한다.



아내는 식구처럼 받아들여 단칸방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다음 날 조출한 아침상을 차려주었다. 말수가 적은 그녀가 이경을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이었다고 본다. 자신을 “고아”처럼 여긴 이경에게 ‘김칫국’이 아닌 옥희도 아내의 밥상과 도시락은 “신기하고 눈부”신 것으로서 그녀의 “정성”을 알 수 있는 음식이었다. 이경이 아내로부터 받은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치유였다고 본다.

1985년도에 나온 『서있는 여자』 37)는 모녀의 정체성 찾기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딸 연지와 어머니 경숙은 중산층 여성으로서 평온한 삶을 유지하였으나 딸의 ‘결혼’을 기점으로 삶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맞이한다. 잡지사 기자인 연지의 결혼은 70년대 지식인 여성, 젠더의식을 보이기 시작하는 여성의 결혼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이상적 또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낭만적 결혼관을 지녔다. 즉 결혼생활은 남편과 동등한 가사분담과 부부의 대학원 진학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지의 결혼관은 아버지 하교수의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다.

아버지 하교수의 ‘서재’는 가정에서 두 여성에게 성격이 전혀 다른 동경의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딸 연지에게 아버지의 서재는 한 인간의 삶이 오롯하게 존재하는 이상화된 공간이며, 아내인 경숙에게는 견고한 가부장적 태도와 학문에만 전념하는 금욕의 공간이었다. 경숙은 남편의 서재 앞에서 무참히 거부당한 상처를 안고 있다. 얇은 잠옷 속에 전라를 감추고 남편의 사랑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열리지 않는 서재 앞에서 오염한 아픔이 있다.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연지는 부모의 부부로서의 관계에 의문을 지니게 되었다.

이상적인 결혼관을 지닌 연지의 결혼 생활은 그러나 녹록하지 않다. 남편 철민의 가부장적 태도, 성차별이 심한 직장에서의 기혼 여성에 대한 경계와 부당한 대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한편, 연지의 결혼은 동시에 엄마 경숙의 이혼 위기로 이어진다. 경숙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부부싸

움의 내용을 꺼내어 하교수가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10여 년 전 부부싸움 중에 이혼을 요구했던 그녀에게 연지를 결혼시킨 이후에 이혼을 하자는 하교수의 대답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혼위기에 직면한 경숙은 배신감과 두려움이 컸으나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그 첫 번째 행동은 이혼녀로 성공한 삶을 보여주는 동창들을 순례하는 여행이다.

그녀는 유명한 의사로 잘 살고 있는 닥터 박,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은선의 집을 가장 먼저 방문한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이혼한 동창생들이 여성으로서 겪는 다양각색의 삶이다. 경숙의 눈에 비친 닥터 박의 살림집은 삶의 신산함이 여과 없이 노출된 공간이다. 정리정돈이 안 된 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닥터 박의 집은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닥터 박의 사회적 명예와 대조되는, 한 여성의 외로움이 무질서하게 노출된 장소일 뿐이다.

이런 고향해 먹을 집구석 봤나. 이렇게 욕지거리를 하면서도 경숙은 저녁을 거를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보오얏게 우러난 고깃국물에다 고기를 송덩송덩 썰어 넣고 소금하고 후춧가루만 쳐서 맛좋은 국을 만들었다.

그녀는 혼자서 낫선 집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과 곰국 한 대접을 아귀아귀 먹었다.

혼자 사는 일은 용기를 요하는 일이고 용기는 곧 체력이거든. 용기가 정신력이나 고추장 먹는 발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오해야. 그녀는 포식한 배를 두들기며 큰 깨우침이라도 도달한 듯 이렇게 자신 있게 중얼댔다.<sup>38)</sup>

경숙은 친구도 없는 난장판의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낫선 집 식탁’에 앉아 ‘곰국 한 대접’을 ‘아귀아귀’ 먹는다. 그녀에게 음식은 이혼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와 ‘체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다. 박완서 소설에는 이처럼 여성이 새로운 각오를 할 때 음식부터 든든히 챙겨 먹는 모습이 여러 곳에 등장한다.

37) 『서있는 여자』는 1982년 4월부터 1983년 11월까지 『주부생활』에 ‘떠도는 결혼’으로 연재되었던 작품이다. 이후 85년에 학원사에서 『서있는 여자』로 발간되었다.

38) 박완서, 『서있는 여자』, 세계사, 2007, 176면. 이후의 인용은 제목과 면수만 기재한다.

그러나 경숙은 포식을 하였어도 닥터 박의 외로운 모습, 남편으로부터 전화 한통 없는 상황에 이르자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방문한 은선의 집은 닥터 박과 크게 달랐다. 그녀의 집은 무질서한 닥터 박의 집과 달리 정리정돈이 잘 되었고, 정원 또한 잘 꾸어진 집이었다. 그녀는 평생 유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은 재력 있는 여성으로서, 여성성과 성욕을 포기하지 않은 점에서도 닥터 박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은선의 집에서는 이혼녀의 심리를 반영한 병리적 징후가 감지된다.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칼조차도 용납지 않는 과도한 결벽증, 가끔씩 찾아오는 아들의 무례함에 무방비한 어머니로서의 모습, 정부를 위해 교자상 가득히 마련한 음식들은 이혼한 여성의 건강한 삶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인 선을 넘고 있다.

경숙은 이혼한 친구들을 순례하는 동안 그들을 이해하거나 이면의 삶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녀는 ‘하교수의 부인’이자 ‘전업주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지닌 안정감을 거듭 확인할 뿐이다. 그녀는 결국 집으로 귀환하여 남편과 화해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불안하게 지탱하던 연지의 결혼은 이혼으로 치닫는다. 직장생활을 위해 연지가 결정한 유산과 이런 태도에 폭력으로 이어진 철민의 행동, 연지의 출장 중에 드러난 철민의 부정행위 등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

갈비 익어가는 냄새가 연지의 공복감을 자극했다. 뱃속의 꼬르륵 소리가 맹수의 울부짖음처럼 힘차지는 걸 기화로 연지는 맹렬한 식욕으로 갈비를 뜯기 시작했다. 거의 맛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팠고, 맛보다는 질긴 걸 물어뜯는 이빨의 쾌감이 그녀의 식욕을 더욱 거칠게 했다.(…중략…)

작년 가을 철민과 함께 해운대로 그 재미없는 여행을 떠났을 때, 혼자 자서 밤중에 호텔을 빠져 나와 먹은 것도 갈비였다. 그때 그녀는 철민한테 당한 가학적인 성행위에 대한 분풀이처럼 열렬하고 무식하게 갈비를 뜯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풀이도 됐지만, 자신 속에서 혼자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감 같은 걸 확인하는 의식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그

녀는 그때 마치 자기만의 비상금의 액수를 몰래 꺼내보며 즐기듯이 그런 자신감을 즐기려 들었었다.(…중략…)

연지는 자기가 뜯고 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갈비의 잔해를 보면서 생각했다.

그때 해운대에서 혼자 갈비를 뜯은 일이 앞으로 혼자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감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면 지금 아버지 앞에서 갈비를 뜯은 일은 자신감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는 의식쯤 되려나 몰라. 왜 하필 중요한 고비마다 갈비가 먹고 싶었을까? 힘든 일이니까, 용기를 요하는 일이니까, 우선 먹어두는 거지 뭐.(『서있는 여자』, 292면)

연지는 어머니가 이혼한 친구들을 순례하는 동안 자신의 결혼상태를 아버지에게 알린다. 남편의 외도 사건을 전환점으로 연지는 자신의 결혼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천착하였다. 그 결과 잡지사 기자인 그녀는 자신만의 삶, 자신의 글쓰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연지는 인생의 큰 결정 앞에 ‘갈비’를 뜯는 왕성한 식욕을 인상 깊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신혼여행 때 이미 한번 나온 모습이다. 신혼여행에서 이미 다가올 결혼생활의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철민의 ‘가학적인 성행위’에 불만을 품었으며,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혼자 갈비집에서 고기를 구워먹었던 것이다.

지금도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혼 결심을 얘기하면서 갈비를 ‘뜯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고기’, 즉 ‘갈비’를 먹는 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기는 대체로 남성적 이미지<sup>39)</sup>에 부합하는 음식이다. 붉은 고기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체력, 공격 등 남성적 이미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연지가 선호한 ‘갈비’는 엄격한 음식 피라미드<sup>40)</sup>의 정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젠더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완서 후기의 대표작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도 음식은 매우 중요

39)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신현승 옮김, 시공사, 2002, 280-285면, 참조.

40) 위의 책, 287면.

한 문학적 재현의 의미를 지닌다. 이 작품은 중년이 되어 만난 초등학교 동창의 불륜과 사랑, 아들 숭배, 성적 욕망과 여성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 등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영빈과 현금의 불륜, 영빈 아내의 아들 소망, 영묘의 시댁 이야기가 중심 서사를 이루면서 여성의 삶을 드러내었다. 영빈의 현재 애인인 현금, 아내 수정, 여동생 영묘 중, 이 글에서는 지면상 음식과 친연성이 강한 현금의 이야기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녀의 음식 만들기는 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박완서의 소설에서 음식의 문학적 재현을 살펴볼 때, ‘음식 먹기’의 행위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 작품에 이르면 여성의 ‘요리하기’, 즉 현금의 요리하기가 여성의 정체성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집에서 식사하는 것, 그 음식을 여성이 요리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당연시하는 일상적 활동이다. 주인공 현금은 그러한 여성의 ‘요리하기’에 대하여 강렬한 저항의 태도를 지녔던 여성이다. 그런데 ‘요리하기’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면서 삶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녀의 이혼과 새로운 삶의 추구에 지배적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요리하기’가 된다. 이혼의 배경에 ‘요리하기’에 대한 저항의 태도가 작용하였다면, 현재 애인인 초등학교 동창생 심영빈과의 진지한 사랑에는 ‘요리하기’에 대한 열정이 작용하고 있다.

현금과 전 남편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쾌락적인 삶을 즐기는 부부였다. 그러나 현금은 “그와 쾌락은 공유하되 다른 공유물을 갖고 싶지”(51면) 않은, 그래서 철저히 피임을 하는 여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를 위해 밥 짓고 반찬 만들기”(51면)를 싫어하였다. 남편은 현금이 지어주는 “집 밥”(52면)을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으나 끝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남편을 위한 음식 만들기를 거부한 그녀의 무의식에는 남편에 대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앤 머콧에 의하면 젠더와 요리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그는 “집에서 요리한” 식사는 사회적 영역의 표지로서 온정, 친밀성, 개인적 접촉이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sup>41)</sup> 이러한 주장에 의할 때, 현금은 그녀의 남편을 쾌락의 공유자로는 인정하되 평생의 반려자로는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표면적으로 현금은 남편과 잘 지내는 아내였지만 남편을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현금은 충분한 위자료와 예상치 못한 부동산 봄으로 이혼 후에도 매우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쾌락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마저 “도깨비”(60면) 같은 삶을 마치고 “사람 노릇 좀 하라”(60면)는 잔소리를 할 정도이다. 그녀의 삶에 변화의 징조가 보인 것은 ‘요리하기’에서 비롯되었다.

밥을 안치고 나서 몇 가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밥이 뜸드는 냄새와 된장찌개, 굴비 굽는 냄새가 어우러지면서 이곳이 바로 사람 사는 집구석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운 냄새였다. 나는 밥 냄새를 통해 내 유년기와 맺어지고 있었다.<sup>42)</sup>

마침내 다 된 밥과 끓고 익어가는 반찬의 냄새가 어우러져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는 절정에 달했다. 오장육부가 아우성치듯 맹렬한 식욕이 솟구쳤다. 그러나 꼭 참고 식탁 위에도 격식을 차려 밥상을 차렸다. 나는 반듯하게 차린 밥상을 받으며 자랐다는 자의식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도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일단 상차림이 끝나자 짐승처럼 게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는 생전 처음이었다. 나에게 음식솜씨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나이에도 내 안에 발견할 게 남아 있었다는 건 또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던지.(『아주 오래된 농담』, 61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집에서 밥을 해본 경험은 현금의 부유하는 삶에 안정감을 주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이사를 하면서 영빈과 헤어진 현금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은 사라졌지만 남편과의 삶에서 드러나듯,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여성의 삶을 영위하지

41) 밥 애슬리 외 3인, 『음식의 문화학』, 박형신·이혜경 옮김, 한울, 2014, 191면.

42)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실천문화사, 2005, 60면. 이후의 인용은 작품명과 면수만을 기재한다.

않았다. 그녀의 전공인 피아니스트로서의 삶도 성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인생의 뚜렷한 목표 없이 쾌락을 좇아 살아가는 나날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 본 음식은 그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으며 자존감이 우세했던 ‘유년기’를 떠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즈음 우연히 재회한 심영빈을 통하여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영빈을 위한 다양한 요리 만들기에 전념하며, 그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욕망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불임클리닉에서 만난 영빈의 아내와 뜻하지 않게 여성적 연대감을 쌓으며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영빈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현금에게 나타난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은 요리에 대한 눈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004년에 발표한 마지막 장편 『그 남자네 집』에서도 여성의 요리하기에 대한 의식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나’는 노년의 여성이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땅 집’으로 이사 간 후배를 방문하는 일을 계기로 하여 옛 애인의 고풍스런 집을 회상한다. 후배의 새로운 동네가 그녀의 첫사랑이 살았던 동네였던 것이다.

‘나는 첫 사랑과 연애하던 결혼 전후의 시절을 차례대로 회상한다. ‘나’가 기억하는 첫 사랑 ‘그 남자’, 은행원 남편, 박수무당에 연연하는 시어머니, 동대문시장에 점포를 얻은 올케 등의 삶이 세태소설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그 남자가 살던 ‘집’이라든가 그와 함께 연애하던 공간들의 토폴로지가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sup>43)</sup>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서사라인이 여성의 ‘음식 만들기’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 나타난 요리하기는 앞서 보았던 현금의 요리와 매우 대조적이다. 이 작품에서 요리하기에 열정을 보이는 인물은 ‘나’의 시어머니이다. ‘나’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집착에 가까운 음식 만들기에 ‘이질감’

43) 이 작품에 대한 공간의 의미는 다음 논문들이 참고가 될 것이다. 한귀은, 「장소감에 따른 기억의 재서술: 박완서의 『그 남자네 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3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신수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동대문시장의 젠더정치학과 전후 중산층 가정의 균열」,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1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16.

과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 오로지 먹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집안에 대한 이질감은 점점 혐오감으로 변했다. 구경만 하는 것도 피곤하고 짜증스러웠다.<sup>44)</sup>

② 문득 시어머니가 길들여놓은 남편의 입맛은 그들 모자 사이의 뱃줄이란 생각이 들었다.(『그 남자네 집』, 126면)

③ 친정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는 건 그 밖에도 많았다. 특히 순 서울 식으로 담근 오이소박이 맛은 일품이었다. 냉장고가 없을 때라 아들이 퇴근해 들어오는 저녁상에 맛이 절정에 달한 오이소박이를 올리기 위한 시어머니의 노력은 눈물겨웠다.(『그 남자네 집』, 127면)

④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벼가 누렇게 익을 무렵에 장이 딱 찬다는 참게장 담글 궁리를 하고 있었다. 게장용 진간장까지 따로 담가놓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생전에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시집의 식도락에 절망을 느꼈다. 먹는 것 외의 판생각을 하고 살 순 없는 것일까. 나는 판생각을 하기 좋아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어떤 것이 옳은지 비교할 생각은 없었지만 판생각을 하는 게 나에게서 더 맞는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지기 시작했다.(『그 남자네 집』, 136면)

①~④의 예문들은 외아들에 대한 사랑을 ‘음식 만들기’로 표현한 시어머니의 모습이다. 이를 바라보는 며느리 ‘나’의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다. 유별나게 음식 만들기의 절차에 집착하는 시어머니와 ‘판 생각’을 좋아하는 나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에게 시집을 온 ‘나’는 시어머니의 행위를 통해 젠더의식을 키우게 된다. ‘나’는 시어머니의 ‘요리하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여성의 일상적 삶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

신혼 초, 첫 사랑인 ‘그 남자’와의 재회는 그의 누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먼 친척 뻘이기도 한 ‘그 남자’와의 재회는 결혼

44) 박완서,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4, 120면. 이후의 인용은 제목과 면수만 기재한다.

이라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자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음식 만들기에 대한 집착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중이었다. 시어머니의 음식 만들기는 엄청난 시간과 노동을 요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식사의 과정보다 만들기의 절차에 집착하는 것은 요리가 권력화 되는 순간이다.<sup>45)</sup> 이는 과부가 되어 키운 외아들에게 심리적으로 구속당한 어머니의 인생, 여성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현금의 요리하기와는 매우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70년대 당시 대학을 나온 ‘나’의 젠더 의식으로 볼 때는 결혼 생활에 대하여 “절망”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임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는 시어머니가 다락 같이 높여 놓은 아들의 입맛에 아부하기 위해 솜씨를 있는 대로 부린 송이산적의 맛보다 ‘그 남자’하고 같이 시장바닥 진창에 쭈그리고 앉아 사먹는 돼지껍데기에 더 깊은 맛을 느꼈”(184면)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삶의 방식에 저항하는 면이 있다. 여성들은 빈번히 음식을 이용하여 가족성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자신들이 음식(특히 가정의 맥락에서) 즐거운 것으로 경험하기란 쉽지<sup>46)</sup> 않은 법이다.

그러나 주인공 ‘나’는 권태로움과 위태로움이 내장된 결혼 생활을 결국 슬기롭게 이겨낸다. 은행원 남편의 규칙적인 생활과 시어머니의 일상생활에 열중하는 삶의 태도를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요리하기에 집착하는 어머니의 생활방식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여성의 젠더의식의 변화를 작품 발표순서대로 살펴본 셈이다. 박완서의 여성인물이 젠더의식을 지닌 것은 등단작에서부터 마지막 장편까지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먹기’에서 ‘요리하기’로 변화하는 가운데 여성적 주체의 모습을 강화하고 있다.

45) 이선옥, 「박완서 문학의 여성성: ‘집’과 ‘밥’의 기억을 통한 여성들 간의 소통」, 『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73면.

46) 밥 애슬리 외 3인, 앞의 책, 198면.

## 5. 결론

지금까지 박완서의 장편소설 10편에 나타난 음식과 음식문화를 통하여 여성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주목하였다. 연구의 처음 시작은 일상생활의 묘사에 탁월한 박완서의 소설을 문화론적 관점인 음식으로 새로이 읽어보자는 취지로 장편과 단편을 모두 대상화하였다. 그의 소설에 음식 이야기가 매우 광범위하게 편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면상의 제한과 연구자의 역량에 그의 모든 텍스트를 한 번에 다루는 것은 버거운 작업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편의상 장편과 단편으로 나누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15편의 장편 중에서 음식 이야기가 우세한 10편의 장편으로 대상을 좁혔다. 등단작 『나목』에서 시작하여 『목마른 계절』, 『휘청거리는 오후』, 『도시의 흥년』, 『서있는 여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등이다.

10편의 작품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 양상은 크게 4가지로 수렴된다. 작품에 따라 하나의 양상이 아니라 중복되는 경향도 있으나 강조되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생존 본능을 드러내면서도 인간다움의 가치 지향을 보여준 『나목』, 『목마른 계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이다. 그리고 세속적 욕망과 ‘순정 시대’의 갈망은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고향에 대한 향수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자서전적 경향의 소설에서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나타난 기억의 방식이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통한 젠더의식과 정체성의 구현은 『나목』, 『서있는 여자』, 『아주 오래된 농담』과 『그 남자네 집』 등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제별 구분은 창작연대와 여성들의 자의식 변화가 주요한

기준이 되었으나 몇몇 작품은 발표 시대와 무관하게 다루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와 같은 경우, 80년대의 시대 상황에서 한국전쟁을 주요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50년대 대표적 음식의 양상인 ‘생존’의 의미에서 논의하였다.

박완서가 형상화한 여성의 특성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더라도 변함 없는 모습은 매우 오만한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교만한 것과는 그 결이 다른 것이다. 오만한 여성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으로서 남성을 관찰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 여성 자신에 대한 내면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 자의식 강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의 여성은 등단작 『나무』의 이경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편 『그 남자네 집』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즉 작가의 연륜에 따라 오만한 여성은 비판적 시선과 함께 세상을 포용하는 태도, 심리적 여유 같은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쟁과 70년대 산업화, 90년대 후기자본주의로 이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여성의 삶은 비판적 시선을 지녔으며 능동적이고 여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여성들과 친화적 관계에 있는 음식이나 음식문화는 시대마다 다른 양상을 지닌다. 한국전쟁의 상황에서는 생존 본능을 보여준 대상이자 인간다움, 인간애를 보여준 것으로 드러난다. 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환경은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였고, 중산층들이 지닌 세속적 욕망과 이중성, 속물성 등을 음식으로 구현하였다. 작중인물은 풍요로운 음식에 길들여진 미각을 통해 이러한 중산층의 세속성을 비판하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젠더의식이 더욱 뚜렷해진다. 한국전쟁부터 80년대까지 음식이 주로 ‘먹기’의 대상으로 그려졌다면 90년대부터는 ‘요리하기’, ‘함께 식사하기’를 통하여 여성의 삶, 성적 욕망 등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젠더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은 공간의 특성과 음식의 문학적 재현을 함께 다루는 것이 그의 소설특성을 규명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깊이 있게 끌고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박완서 소설에서 자서전적 경향을 드러내는 90년대의 작품들에는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음식문화로 드러내고 있다.

박완서는 음식의 문학적 재현이라는 서사 전략을 발휘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탁월한 묘사력과 함께 여성 의식의 변화 양상을 시대적으로 의미 있게 표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태소설의 성공적인 형상화는 평범한 일상성에 내포된 담백한 모습과 상징적 의미를 간과하지 않는 글쓰기에서 비롯됨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02.  
 ———,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03.  
 ———, 『엄마의 말뚝』, 세계사,  
 ———, 『회청거리는 오후』, 세계사,  
 ———, 『도시의 흉년』, 세계사, 2002.  
 ———, 『서있는 여자』, 세계사, 2007.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세계사,  
 ———,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출판, 2008.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지식하우스, 2007.  
 ———, 『아주 오래된 농담』, 실천문학사, 2000.  
 ———,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4.
2. 논문
- 김미영, 「박완서의 성장소설과 여성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연구』 제 25집, 한중인문학회, 2008.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9집, 한국사회학회, 2015.  
 김홍중, 「파우스트 콤플렉스: 아산 정주영의 꿈과 자본주의의 마음」, 『사회사상과 문화』 18-2,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김혜선, 「한국적 삶에 드러난 ‘허기’와 ‘포만’의 의미: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8집, 한국근대문학회, 2017.  
 서은영, 「‘순정’ 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대중서사연구』 제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신샐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상허학보』 제45집, 상허학회, 2015.  
 이선옥, 「박완서 소설의 다시쓰기: 딸의 서사에서 여성들 간의 소통으로」,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0.  
 ———, 「박완서 문학의 여성성: ‘집’과 ‘밥’의 기억을 통한 여성들 간의 소통」, 『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 임순만, 「해설: 분단극복을 향한 문학의 가능성」,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계사, 2008.  
 임옥희, 「박완서 문학과 페미니즘」,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정호웅, 「해설: 옥망의 안쪽」, 박완서, 『회청거리는 오후』, 세계사, 2005.  
 차미령, 「생존과 수치: 1970년대 박완서 소설과 생존주의의 이면」,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3. 단행본
- 권태준, 『한국의 세기 뛰어넘기』, 나남, 2006.  
 김 향, 『말하는 입과 먹는 입』, 새물결, 2009.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황도경, 「이야기는 힘이 세다」, 『문체로 읽는 소설』, 소명출판, 2002.
- 테버러 럽턴, 『음식과 먹기의 사회학』, 박형신 옮김, 한울, 2015.  
 로널드 르블랑, 『음식과 성』, 조주관 옮김, 그린비, 2015.  
 밥 애슬리·조안 홀로스·스티브 존스·벤 테일러 지음, 『음식의 문화학』, 박형신·이혜경 옮김, 한울, 2014.  
 비 윌슨, 『식습관의 인문학』, 이충호 옮김, 문학동네, 2017.  
 쇼펜하우어, 『생존과 허무』, 함현규, 빛과향기, 2006.  
 캐롤 M. 코니한, 『음식과 몸의 인류학』, 김정희 옮김, 갈무리, 2004.

<Abstract>

A literary representation of food in Park Wan-seo's  
feature novel

Kim, Mi-Young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connections between the social environment and women's self-consciousness in Park Wan-seo's novels based on the literary reproductions of foods in her works. Recognizing that the writer approached her writing from the viewpoint of women's lives from her debut work in 1970 to her last novel encompassing life after the Korean War, modernity, and industrialization process, the study focused on food culture,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in a microscopic approach.

As the Korean society evolved through the Korean War,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nd postcapitalism in the 1990s, women changed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ir lives and embody their identity.

In Park's novels, food represented characters' survival instinct during the Korean War and also displayed their humanitas and human love. The new middle class emerged in the environment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1970s, and Park embodied the secular desire, duality, and snobbery of the middle class with food. Her characters criticize the secular tendency of the middle class and reflect on themselves through abundant food and their taste that had been tamed. Entering the 1990s, women's gender consciousness began to be clear in the postcapitalist society. Women expressed their lives and sexual desire through cooking. In her

works with an autobiographical tendency published in the 1990s, Park talked about her nostalgia for her childhood and longing for her mother through the food culture.

Her diverse food discourses in her novels can be compressed in four major meanings. Some of her patterns overlap among her works, and the study focused on the meanings highlighted by the writer. The first group includes *Namok*, *A Thirsty Season*, *We Were Warm during the Winter*, and *Was the Mountain Really There?* They show the value orientation of humanitas while revealing survival instinct. The second group includes *A Shaky Afternoon* and *A Year of Bad Harvest for the City*, which depict secure desire and the yearning of "pure love era." The third group depicts her nostalgia for her hometown and longing for her mother, which is strong in her novels with an autobiographical tendency. The group includes *Who Ate Up All the Shinga* and *Was the Mountain Really There?* The last group includes *Namok*, *A Standing Lady*, *A Very Old Joke*, and *The Man's House*, which embody gender consciousness and identity through food.

Armed with her remarkable ability of describing daily life, Park implements a narrative strategy through food. The findings of the study demonstrate that food and the food culture not only showed the lives of women, but also had huge impacts on her novels of manners and embodiment of dailiness that characterize her works.

\* Key Words : survival instinct, humanity, worldly desire, innocent age, memory, nostalgia, gender consciousness, identity.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5일에 투고되어 2020년 11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일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다.